

러 본토 타격한 美에이태컴스...푸틴은 '핵카드'로 맞불

'신속한 종전' 트럼프 재집권 두달 앞 전투 가열 확산 양상 러, 미국의 본토 공격 허용에 "제3차 세계대전 촉발" 경고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태컴스(ATACMS)로 결국 러시아 본토 타격을 감행, 1천일째를 맞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확산일로에 접어들게 됐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해 우크라이나도 핵공격 대상으로 포함하는 '핵카드'로 맞불을 놔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오전 3시25분 우크라이나군이 접경지 브란스크주에 에이태컴스 미사일 6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방공시스템이 6발 중 5발을 격추했으며 나머지 1발에도 손상을 입혔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측은 성공적 공습이었다고 주장했다.

공격의 성과를 떠나 이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을 이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미국 정부는 아직 승인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 승인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퇴임 전 우크라이나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개월간 요청해왔으나 미국은 이를 들어주지 않고 있었다. 러시아 본토 타격으로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 대한 나토 회원국의 미사일 공격은 나토의 직접 개입이라고 주장했던 만큼 이날 에이태컴스 발사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의 고정밀 장거리 무기를 자체



미국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컴스(ATACMS).

미국 정부가 자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한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이른 오전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단행했다. 사진은 미국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컴스(ATACMS) 발사 장면이다. /AFP=연합뉴스

로 사용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서방 병력이 동원될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사용은 서방의 직접적인 분쟁 개입이라는 새 국면을 의미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같은 충돌 양상은 '신속한 종전'을

공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는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더욱 가열될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압박하는 휴전 협상에 대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유리한 '고지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공교롭게 러시아는 이날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핵 교리(독트린)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에 의한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

는 내용이다. 또 러시아와 동맹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러시아와 함께 전 세계 핵탄두의 88%를 보유한 주요 핵보유국이다.

러시아가 미국이 지원한 에이태컴스를 이용한 우크라이나의 본토 공격을 중대한 위협으로 평가한다면 핵 대응에 나설 수도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러시아 고위 관리들은 앞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를 이용한 본토 공격을 허용한다면 제3차 세계대전이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할 만큼 러시아로선 첨예한 안보 사안이다.

미국도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사용 요청을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트럼프의 재집권이 현실화한 데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투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한 만큼 미국은 이에 대해 대응해야 했다. /연합뉴스

美 "베네수엘라, 대선 승리"...베네수, 또 '한 지붕 두 대통령'?

"野 후보 당선인으로 인정"...'3선 성공' 주장 마두로 반발 할 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개표 불공정성 논란으로 얼룩진 베네수엘라 7·28 대선과 관련해 "아권의 에드문도 곤살레스 후보가 선거 승자"라는 입장을 내놨,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9년 베네수엘라 부정 대선 의혹 이후 빚어진 '한 지붕 두 대통령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서 "베네수엘라 유권자들의 의지에 대한 존중"이라며 "곤살레스 후보를 베네수엘라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이를 바이든 정부 공식 입장으로 간주하면서, 미국이 곤살레스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앞서 친여당 성향의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2차례 득표율 공개를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당선(3선)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 아권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득표율 67% 대 30%로 곤살레스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선포한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마두로 선거 당국에 "개표 과정 전반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해왔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여내 일부 국가는 아예 '마두로의 선거 패배'를 기정사실로 하기도 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군과 경찰을 비롯해 검찰과 여대야소 의회 등 '철옹성'에서 개표 부정에 항의하는 주민에 대한 구금을 명령하는 등 요지부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두로는 강하게 반발하며 '철권'을 더 강하게 휘두를 것으



아권의 에드문도 곤살레스(왼쪽) 대통령 당선인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로 전망된다. 2019년 벌어진 '한 지붕 두 대통령 사태'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도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거"를 주장하는 야당 불참 속에 6년 전인 2018년 치른 '반쪽 대선'을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당시 '여소야대' 베네수엘라 국회는 2019년 1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세웠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역시 대부분 과이도를

지지했다. 과이도는 그러나 사보오열된 의원들 사이에서 투쟁 동력을 잃었고, 2022년 12월 31일 불명예 퇴진했다.

한편, 베네수엘라 당국 체포 위협을 피해 스페인으로 망명한 곤살레스는 이날 엑스에 "모든 베네수엘라 주민들의 주권적 의지를 인정해준 점에 대해(미국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차기 대통령 임기는 내년 1월 10일 시작된다. /연합뉴스

'바나나 공포증 호소' 스웨덴 장관 유명세

국회의장실에 '바나나 치위주길' 요청... "강한 알레르기 반응"

스웨덴의 한 장관이 바나나 공포증을 호소해 그가 가는 곳마다 바나나를 치워달라는 '특별 주문'을 해야 한다고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올리나 브란드베리 스웨덴 양성 평등부 장관의 보좌진은 지난 9월 스웨덴 국회의장실에 보낸 이메일에서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장 내에 어떤 바나나 흔적도 없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보좌진은 다른 이메일 수신자들에게도 그가 참석하는 행사장에 바나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브랜드베리 장관 측은 그가 바나나에 강한 알레르기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장관 본인도 2020년 소셜미디어에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에 브랜드베리 장관이 참석하는 행사마다 주최 측에서 '바나나 통제'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연합뉴스

안드레아스 노르렌 국회의장 측은 장관 측에 회의장 내 바나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리며 "방문 당일 아침에 바나나를 치우는 것으로 충분한다"라고 확인했다.

그의 이런 '바나나 공포증'과 그의 요구 사항에 대해 일각에선 지나치다는 반응도 나오지만 그 동료들은 적극 공감한다고 한다.

엘리사베트 스반테손 재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정치인도 두려움, 공포증, 불안 등을 겪을 수 있다"며 "이것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과연 공개적으로 조명될 필요가 있는 사안인가"라고 지적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 역시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열심히 일하는 한 장관이 단지 공포증으로만 알려지고 조롱받는 상황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문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